

SHALOM JAPAN

양승일 Marcus | 양제나 Janna | 양찬 Declan



할렐루야!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중순, 저에게는 약 8년 그리고 아내에게는 약 10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 당시 아직 둘이 안된 아들 데클란과 아내는 한국에 부모님댁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밀린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을 받으며 충전하였고 저는 일본과 한국을 왔다갔다하며 비자준비를 하였습니다. 한일관계가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비자수속가운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고, 길어지는 비자수속때문에 일본에 홀로와서 외로운 시간이 길어짐에 힘들기도 했지만, 긴 기다림속에 하나님은 큰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5년비자

일본은 종교활동에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종교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선교사님들의 케이스를 보면 처음 신청 시 1년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은 3년, 5년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에게 처음부터 5년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좋지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짧은 기간을 주며 미국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를 요구하는등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에 화가 날때도 있었지만, 긴 기다림가운데 하나님은 큰 선물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모든 증명서와 수속을 5년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일본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공동체/말씀사역

주일 아침 눈을 뜨면 고민하지 않고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공동체가 있다는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정에게 카나자와중앙교회라는 예배공동체를 허락해주셔서 저희가족이 그들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한 성령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 주일 말씀사역을 통해서 큰 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찬양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본인교회에서 외국인인 제가 설교목사로서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리고상이라는 분을 통해 저의 설교 원고를 문법적으로 교정해주는 돕는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일본어도 차츰차츰 늘고있습니다. 저의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언어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듣는 이에게 순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복음이 발

카나자와는 비와 눈이 많고 여름엔 무척 덥기때문에 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때는 어떤분이 빌려주신 자전거로 다녔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아내와 아기도 일본에 들어오면서 자동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분이 자동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쓰시던 차를 저희에게 헌물로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은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는데 그전에 차를 바꾸시고 싶으시다고 서둘러 저희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미국에서 타던 차보다 마일리지도 더 적은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본에 와서 정말 말도 안되는 선물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중입니다.

일본생활

일본에 오기전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정말 불필요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타문화, 특히 외국인에게 베타적인 일본에서 때론 차별을 당할때는 가슴시리도록 아프지만, 문명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사가 나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저와 데클란은 물갈이를 하느라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아내도 10년전 갑상선 암 수술을 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설교목사로 사역하고있는 교회에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일들을 경험할때마다 저희 가정에게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문명권 안으로 저희 가족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테네의 화려한 문명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친 사도바울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질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학생수양회 (8월10-12일)

일본에 오자마자 한 일본교회의 중고생수양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는 중학교 2학년생 여학생인 아이카짱과 아미짱이 참석했습니다. 두 학생의 사진과 기도제목을 미리 받고 기도로 수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영훈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않은 이 두 여중생을 위해서 눈물과 무릎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설교할때 2명밖에 안있었을줄 알았는데 약 10명의 청년들이 수양회를 기획하고 섬기며 함께 말씀을 듣기위해서 앉아있었습니다. 단 2명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여학생은 수양회 후 세례를 받기로 헌신하였고 현재 담당 목사님과 세례문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부탁드립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중보기도의 용사의 전폭적인 후방지원으로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박2일 간증집회 (9월7-8일)**

일본현지분들중 저희를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대학에서 신학까지 공부한 제가, 그리고 미국에서 음악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일본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아내가, 심지어는 돌쟁이 아이들 데리고 낯선 일본에 와서 살겠다는것이 신기한가봅니다. 카나자와중앙교회에서 저와 아내에게 지금까지 저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려 1박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삶에 하나님이 하신 간증을 나누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1박2일을 보내는 동안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를 주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새가족초청예배 말씀사역 (9월14-15일)

카나자와중앙교회 설교목사가 되고 공식적인 첫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게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가을이 되면 전도하기위해 준비된 새가족 초청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20여명의 태신자가 작성되었고 약 1만장의 광고지가 뿌려졌습니다. 14일에는 한국의 웅기장이 선교단의 콘서트가 큰 감동가운데 펼쳐졌고 15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초청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2명의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과 많은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얻게된 열매에 잃어버린 양을 얻게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교회에 설교목사로 사역하면서 주중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주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바이지만 일본현지에 와보니 일본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 현지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은 후, 일본인들과 접점을 만들어 전도할 수 있는 창의적방법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결정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양과 같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저희에게 목자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가 용기를 구합니다. 특히 아내의 일본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데클란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기도제목 / 양승일 제나 찬 선교사

1. 한일간의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일본인교회 말씀사역을 통해 이땅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더하소서.
3. 믿지 않는자들에게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소서.
4. 일본에서 개척할 가정교회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소서.

양승일 선교사 dulos.yang@gmail.com

